

# 육아취약가정의 아동에 대한 정부 책임은 더 무거워야 한다

백선희 소장

**오늘날** 취약계층가정이 겪는 육아의 어려움을 본질적으로 이해하려면 근대(近代) 가족형성에 대해 두 가지 측면에서의 이해가 필요하다. 첫째, 우리사회의 보편적인 핵가족 형태는 전통사회가 해체되고 근대사회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등장한 근대의 산물인데, 여기서 자녀양육의 담당자가 변경되었다는 점이다. 전통사회 대가족 하에서 자녀양육은 여성뿐 아니라 남성 성인세대—할아버지, 아버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삼촌 등등—들도 대거 참여했다면, 핵가족 제도에서는 온전히 여성의 몫이 되었다.

요컨대, 핵가족 제도는 남성은 일터, 여성은 가정이라는 성역할 원칙이 작동되는 가정으로, 노동시장, 학교, 일상 등의 사회 전반의 제도들이 이 같은 성별분업의 원칙을 전제로 구조화되었고, 가정에서 자녀양육에 전담하지 못하는 여성은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둘째, 자녀양육을 전적으로 책임지게 된 여성에게 요구되었던 과업이 있는데 다름 아닌, 서구 학문에 입각한 ‘과학적’ 양육이다. 신식 교육을 받은 배운 여성들은 결혼 후, 의사와 육아전문가들이 제시한 과학적 양육 지침을 잘 따르는 “과학적인 어머니”(김혜경, 2006)로 변모되었고, 이러한 여성이 바람직한 어머니상으로 새롭게 개념화되었다. 이제 여성은 아이한테 분유를 아무 때나 주어서는 안 된다. 일정한 시간에 맞춰서 주어야 하며 물 온도도 정확하게 맞춰야 하고 수면시간도 규칙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위생, 보건, 건강이 자녀양육에 있어서 중요한 아젠다가 되면서 청결하고 깨끗한 양육환경을 자녀에게 제공해야 하는 게 여성의 책무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전통적 양육방식은 낡고 무식한 것으로 평가절하되었다(김혜경, 2006).

이러한 근대 핵가족 제도를 근간으로 정립된 여성상과 ‘과학적’ 양육방식은 오늘날

21세기에도 유효하다. ‘독박육아’, ‘아버지 양육참여’ 등의 용어가 회자되고 있는 현실이 여성은 가정, 남성은 일터라는 성역할 구조가 크게 바뀌지 않았음을 방증한다. 의사, 육아 전문가의 조언이나 처방 그리고 이들이 쓴 전문서적들의 내용은 지켜야 할 절대 선(善)으로 여겨진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렇게 구조화된 사회에서 어떤 가정이 육아취약가구일지는 자명하다. 가정학, 아동학, 교육학, 유아교육학 등 육아 관련 학문이 대학에서 유통되기 때문에 고등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여성이 육아를 담당할 경우 육아취약가구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가정에서 육아를 전담하지 못하는 여성이—대표적으로 취업모— 육아를 담당하면 육아취약가구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러나 고등교육을 이수한 여성이라면 정보력이나 인적 네트워크를 동원해서 자신의 부재를 어느 정도는 메울 수 있다.

따라서 우리사회에서 인적 네트워크가 취약하고 정보력도 불리한 다문화가족의 한부모 가정은—가정 경제를 책임져야 하는 배우자도 부재하므로— 육아 취약성에서 매우 고위험군에 속한다. 장애아 가정과 환아 가정도 일반 가정과 비교하면, 육아 취약성이 매우 높다. 비장애아, 비환아를 키우는데도 ‘과학적’ 육아를 요구하는 마당에, 엄마가 의학적 지식을 배워서 의학적 양육을 행하려면 육아의 무게감은 더욱 무거울 수밖에 없다. 여기에 의료비가 계속해서 들어가야 한다면, 그 고충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이다.

육아취약 최전선에 있는 이들 가정에 태어난 아이들은 자신이 처한 이 상황을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다.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처한 상황에 따라 행, 불행이 갈리지 않는지, 살아가면서 직면하게 되는 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지, 정부는 지금의 취약계층 지원정책을 아이들 입장에서 반성적으로 성찰하고 근원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육아취약가정의 가장 큰 피해자는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이다.

현 정부의 교육정책 모토(motto)인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를 새삼 상기하게 된다.

\* 김혜경(2006). 식민지하 근대가족의 형성과 젠더. 경기: 창비.